

2023 사우회 정기총회 열려



2023년도 사우회 정기총회가 2월 27일 10시 경향신문 1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제3호 의안인 '전임 회장 고문 추대' 등이 다수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가결됐다.



60명의 회원이 참석(위원장 498명)한 이번 회의는 사무처장의 성원보고와 의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사우회 등산동호회 총무와 회장으로 24년간 봉사한 박한성 회원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을 먼저 가졌다. 이어서 한윤희 감사의 감사보고, 사우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제1호 의안인 '2022년도 결산안', 제2호 의안인 '2023년도 예산안',

제3호 의안인 '전임 회장 고문 추대' 등이 다수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가결됐다. 고문으로 추대된 차인태 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장학퀴즈'에 대한 소감 피력과 함께 앞으로도 사우회 발전에 열심히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장명호 사우회장은 사우회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하고 사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들이 최선을 다 할테니 회원 여러분들도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정기총회가 끝난 후 현장에서 간략한 이사 간담회가 열렸으며 사우회 앞날에 대해 이사들은 기탄없는 의견들을 나눴다. 사무처는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작은 기념품을 증정했다.



MBC 안형준 사장 선임

부사장 박태경 보도본부장 박장호
기획조정본부장 박건식



안형준 사장

MBC는 2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새 사장에 안형준 씨를 선임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진행한 대표이사 공모와 시민평가단의 평가, 방문진의 결선투표 등의 과정을 거쳐 차기 대표이사로 확정된 안형준 신임 사장은 2001년 보도국에 입사했으며 사회부와 국제부, 뉴스투데이 편집부장 등을 거쳤다. 2018년부



박태경 부사장

터 2020년까지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을 지냈고 최근에는 기획조정본부 메가MBC추진단에서 근무했다. 한편 박태경 부사장, 박건식 기획조정본부장, 윤미현 콘텐츠전략본부장 등 세 명은 새 이사로 선임됐고 현직 이사인 도인태 미디어전략본부장과 박장호 보도본부장 등 두 명은 이사로 재선임됐다.

올해 첫 번째 이사회 가져

2월 6일(월) 오전 10시 사우회 회의실에서 2023년도 첫 번째 이사회가 열렸다. 정연호 부회장을 비롯해 14명의 감사, 부회장, 이사들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사우회 결산안, 예산안을 포함해 4건의 의안이 상정돼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장명호 사우회장은 그동안 MBC가 사우회에 보내준 모든 지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감사를 표했다.

한윤희 감사는 끊임없는 수지 개

선을 위한 노력과 제도 개선만이 사우회의 장기적인 발전과 안정에 보탬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임원들도 이에 공감했다.

이사회는 결산안 의결, 예산안 의결에 이어 회무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기총회에서 승인받게 될 '고문 추대 건'을 의결했다. 두 시간여의 회의가 끝난 뒤 임원들은 오찬을 함께 하며 사우회 현안에 대한 격의없는 의견들을 나눴다.

발전기금을 보내주신 분들(1월 15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 ▶ 임무혁(이사) 300만원(2회)
- ▶ 장명호(사우회장) 300만원(3회)
- ▶ 박성제(보도) 100만원(4회)
- ▶ 정호식(편제) 100만원(2회)
- ▶ 이수관(관리) 30만원
- ▶ 박한성(관리) 30만원(2회)

- ▶ 차재영(편제) 30만원
- ▶ 신승철(이사) 20만원(2회)
- ▶ 소원영(편제) 20만원
- ▶ 김우중(관리) 20만원(2회)
- ▶ 장한진(관리) 15만원(2회)
- ▶ 하재영(편제) 10만원

- ▶ 이용구(업무) 10만원(2회)
- ▶ 이종구(관리) 10만원(2회)
- ▶ 조형철(관리) 10만원(2회)
- ▶ 양홍열(기술) 10만원(3회)
- ▶ 배종두(기술) 10만원
- ▶ 이승문(편제) 10만원

- ▶ 이동원(관리) 10만원
- ▶ 서정훈(보도) 10만원(2회)
- ▶ 홍이표(관리) 10만원
- ▶ 안주희(ANN) 10만원
- ▶ 이규리(ANN) 5만원
- ▶ 신준동(관리) 5만원



임무혁 장명호 박성제 정호식 이수관 박한성 차재영 신승철 소원영 김우중 장한진 하재영 이용구

이종구 조형철 양홍열 배종두 이승문 이동원 서정훈 홍이표 안주희 이규리 신준동

회/원/동/정



▶차인태(고문)
2월 18일 EBS에서
방송된 '장학퀴즈'
50주년 특집방
송에 출연했다.

1973년 2월 18일 MBC에서
시작한 '장학퀴즈'는 1996년
잠시 중단됐다가 1997년 EBS
로 옮겨 지금까지 방송되고 있

는데 차 고문은 첫 회부터 1990년
까지 18년 동안 진행을 맡았었다.



동/호/회/소/식

등산동호회는 짝수 주(매월 2,4주)
수요일 10시 30분부터 산행을 합
니다. 행선지 등 자세한 사항은 최
정일 회장(010-4214-5534)에게
문의하거나 MBC사우회 카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둑동호회는 홀수 주(매월 1,3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사우회 회
의실에서 바둑을 즐깁니다. 자세
한 사항은 총무 정태식 회원(010-
5214-1805)께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한문동호회는 매주 목요일 10시 30
분부터 사우회 회의실에서 이견세
회원을 훈장으로 모시고 노자 도

덕경을 공부합니다. 함께 하실 분
은 총무 권혁화 회원(010-3739-
0889)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캘리그래피동호회는 매주 월요일 오
후 3시부터 사우회 회의실에서 정
인영 회원의 지도로 실력을 연마하
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총무
조한건 회원(010-2759-0506)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골프동호회는 3월부터 매월 세 번
째 월요일 중주시 대영힐스에서 오
전 07시 30분대에 라운딩을 합니
다. 자세한 사항은 회장 김용빈 회
원(010-5314-8384)께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양광춘(기술)
1986년 기술국 입사.
영상기술국, 제작기술
국 부장, 부국장 등 역
임. 2021년 퇴사.



김창배(편제)
1995년 영상미술국
입사. 영상2부, 특임
사업부 ICT사업팀장
등 역임. 2022년 퇴사.



이성근(기술)
1987년 기술국 입사.
디지털기술국장, 제
작기술국장 등 역임.
2022년 퇴사.



서진교(보도)
1980년 보도국 영상
편집부 입사. 2580,
뉴스 스포츠 등 편집.
2018년 퇴사.



이태희(편제)
1995년 영상미술국 입사. 드라마 '하얀 거탑' '무신' 등
제작. 2019년 퇴사.

회비와 발전기금을 보낼 계좌번호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
(mbc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밤의 디스크쇼



조정선(편제)

1972년. 우리
집에 독수리 마
크가 선명한 성
우전자의 스테레
오 전축이 들어
왔다. 덩치가 웬
만한 장식장 크
기의 '오디오'였
지만, AM과 FM
수신, LP음반을 들을 수 있을 정도
였으니 요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조악한 것이었는데도 우리 집
으로서는 일대 사건이었다.

통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형은 용
돈을 쪼개 음반을 사곤 했는데, 몇
장 안 되는 해적 음반 듣는 것도 지
겨웠던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매일
밤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며 음악과
진행자의 이야기를 들곤 했다. 물
론 그 사이에 오디오는 어느새 형
과 함께 쓰던 우리 방으로 옮겨졌
고 나도 싫든 좋든 라디오 심야 방
송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

그때 들던 프로그램이 FM <박원
웅의 밤의 디스크 쇼>(후에 '박원웅
과 함께'로 바뀐)였다. 폴 모리아 악

단의 '한 여름밤의 세레나데'를 오
프닝 곡으로 하던 <밤의 디스크 쇼
>는 무엇보다 새로운 팝 음악과 정
보가 있어서 좋았다. 당시 막 해산
한 비틀즈의 따끈한 신곡들이 매일
프로그램을 장식했으며 사이먼 앤
가펍클, 엘비스 프레슬리, CCR, 딥
퍼플 등도 단골 손님이었다. 형은
점점 <밤의 디스크 쇼>의 단순 청
취자를 넘어 매니아 수준으로 발전
해서 매주 음악 신청 엽서나 사연
을 보내기 시작했다.

어느날 형은 내게 '엘비스 프레슬
리의 'Burning Love'를 신청해놨
는데 마침 외출을 해야 하니 자신
의 이름이 방송에 나오거든 꼭 녹
음해 놓으라'고 당부했다. 전축에
동시 녹음 기능이 없었던지라 불륨
을 크게 틀어놓고 일본제 납작 녹
음기의 스위치를 짚싸게 누르기 위
해 그날 밤 나는 두 시간을 긴장으
로 보내야 했다.

하지만 분명 '엘비스'가 그날도 <
밤의 디스크 쇼>에 출연해 '사랑을
불태웠음'에도 기대했던 형의 이름

은 나오지 않았고, 나는 동작이 굵
뜨다는 이유로 두고두고 억울한 원
망을 들어야 했다.

이러저러한 일로 인연이 깊어진
<밤의 디스크쇼>는 이후 빼놓아서
는 안될 내 잠자리의 파트너가 되
었다. 신곡에 대한 정보를 무기로
다음 날 학교에서 '잘난 나'를 부각
시켰다.

나중에는 전문 서적까지 사보며
팝 지식이 나날이 느는 것에 가슴
뿌듯했다. 그러다 보니 가족 친지
의 생일은 몰라도 유명 아티스트의
생일은 줄줄이 꿰게 됐고 팝가수의
활동 상황과 히트곡의 연표나 차트
순위를 줄줄이 외우고 다녔고, 친
구들과 서로 얼마나 아는지 대결을
벌이는 재미도 쏠쏠했다. 더우기
독학한 통기타 실력으로 팝 악보집
여러 권을 사서 노래를 연습했는데
소품이나 MT를 갔을 때 분위기를
돋우기에는 그만이었었고, 덕분에 주
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밤의 디스크 쇼>가 위력
을 발휘한 곳은 뜻밖에 'MBC 입사'
때였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나는

그저 어지간한 기업의 무역관련 업
무나 사무직의 평범한 직장생활을
꿈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
간지에 실린 MBC 공채 시험 공고
를 보게 되었는데 라디오 PD란 직
종이 눈에 확 띄었다.

솔직히 라디오 프로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지
만 직감적으로 "그래, 라디오 PD는
DJ와 함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들려주는 직업일거야!"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떠올리며 도전
해보기로 했다. 그러니 면접에서도
음악 프로그램 특히 <밤의 디스크
쇼>를 들으며 자랐던 것을 최대의
무기로 삼을 수밖에...

"MBC FM을 들으며 자랐습니
다. 좋은 음악 프로그램을 하고 싶
습니다"

나의 이런 씩씩한 대답은 사회적
인 문제의식을 접근 방식으로 삼았
을 다른 응시자들을 물리치게 했
다. 내가 MBC라디오에서 20년의
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10
여 년에 걸친 프로그램 청취에 대
한 보은이었던지 모르겠다.

경조사항

구순: 김포천(편제) 34.3.31 민흥식(기술) 34.4.7 이낙용(보도) 34.4.12
우윤근(고문) 34.4.20 최규두(관리) 34.5.5

팔순: 김굉안(대구) 44.3.20 이상열(보도) 44.4.1 장경철(보도) 44.4.20
정영환(보도) 44.4.24 정병준(관리) 44.4.26 유문식(관리) 44.4.27
김병문(관리) 44.5.2 오영환(관리) 44.5.6

고학: 김종윤(기술) 54.3.17 고영석(관리) 54.3.20 전진권(편제) 54.3.27
황희만(보도) 54.4.2 김민호(보도) 54.4.11 이명기(편제) 54.4.20
이동한(관리) 54.4.27 김 영(편제) 54.5.3

회갑: 이석희(기술) 63.3.29 주광순(관리) 63.4.22 차상익(기술) 63.5.1

결혼: 서영호(보도) 아들 2/18 박승규(보도) 아들 2/25
박병주(관리) 딸 2/26 김태현(편제) 아들 2/25
김기배(편제) 아들 3/11 김경중(보도) 딸 3/11
박종(편제) 딸 3/25

부음: 김형국(기술) 장모상 1/13 이종성(기술) 배우자상 1/20
김일만(편제) 모친상 1/23 김창수(기술) 모친상 1/28
정연태(편제) 장모상 2/8 김종관(업무) 모친상 2/15
김경철(편제) 모친상 2/19 조영배(편제) 장모상 2/20
한승영(기술) 장모상 2/21 채애림(관리) 모친상 2/23
김철영(편제) 장인상 2/24 이동원(관리) 시모상 3/1
권현주(관리) 시모상 3/1 염영수(편제) 장모상 3/5
차경호(보도) 모친상 3/9

연희비

평생희비: 양광춘(기술) 이성근(기술) 김창배(기술) 서진교(보도) 이태희(편제)

2022년: 김낙현 정갑표

2023년: 강복주 강현식 권태규 권혁화 김상옥 김선희 김억동 김영금 김철영
김재영 김형국 남궁미 노영인 문용수 박민정 박종순 박찬순 박화진
반주원 방남순 신명현 서은선 서정호 안종순 안주희 엄기원 연구철
염영수 윤남현 이명순 이성호 이승문 이승재 이양휘 이연경 이인숙
이종현 이중구 이하걸 전영찬 정명환 정봉일 정영웅 정영희 조미숙
조은국 최경미 최운형 최정일 최화숙 한병우 한승영 홍신숙 홍이표

2024년: 김우중 오명환 황진욱

2025년: 박한성 신기준

2031년: 전용학

주소 변경 / 신규

편제: 김병훈 서울 구로구 경인로 343 (고척동, 삼환로즈빌)
김승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북문로3가, 한신희플러스아파트)
김일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일산동, 후곡마을12단지아파트)
박종덕 경기 양평군 개군면 구미리
이용석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24 (양재동, 마로니아아파트)
이태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333 (마두동 백마마을단지아파트)

보도: 서진교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3길 (병산리)
이현규 경기 광명시 영당안로 7 (소하동, 오동빌스)
이준희 경기 부천시 신흥로 170 (위브더스테이트)

기술: 김창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62 (식사동, 동문굿모닝힐아파트)
양광춘 서울 금천구 빛꽃로 100 (독산동, 독산역 롯데캐슬)
양승원 서울 강동구 성안로 25길 15 (천호동, 삼성아파트)

관리: 최인준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동로47 (풍산동 미사강변브라운스톤)

대구: 김굉안 대구 중구 동덕로3 3(대봉동 청운맨션아파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金鍾淳(기술)
1월 19일 별세. 향
년 90세. 1968년 기
술국 입사. 송출기
술부 등 근무. 1982
년 퇴사.



林準錫(기술)
2월 5일 별세. 향
년 74세. 1983년
기술국 입사. 보도
기술부 등 근무.
2007년 퇴사.



趙春熙(대전)
1월 27일 별세. 향
년 76세. 1971년 대
전MBC ANN 입
사. 부산MBC 근무.
1975년 퇴사.



李良徽(전주)
2월 18일 별세.
향년 72세. 1969
년 전주MBC 입
사. 총무부 근무.
1997년 퇴직.



朴貞燮(편제)
3월 1일 별세. 향년 77세. 1973년 입사. 영상미술
국 미술부 근무.. 1998년 퇴사.

문화방송 (MBC) 사우회
동화인협동조합
DONG HWA IN COOPERATIVE

문화방송 (MBC) 사우회의 상조는 동화인협동조합과 C&G라이프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부모, 내 형제처럼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100% 후불제 상조

1등 서비스, 고객만족, 전문인력, 경쟁력

C&G라이프는 국가공인 키텔러지도사가 키텔러를 책임지는 의전 전문 회사입니다.

사우회 상조관련 문의 010-8761-6643 전국 24시간 대표번호 1544-4744

〈다시 읽는 그때 이야기〉



故 김범석

『전설따라 삼천리』 이렇게 태어났다

김범석 PD는 창사 초기부터 ‘백 만’이라는 예명으로 많은 라디오 드라마를 연출했으며 본사에서 퇴직한 후에도 충주MBC에서 방송위원으로 제작에 참여했다. 『전설따라 삼천리』는 1966년에 시작해 1983년 10월까지 방송됐다. 1978년 7월 방송 4408회를 끝으로 한 동안 중단되었다가 1982년 9월 다시 방송되기도 했다. 전통과 미풍 양속을 되살리는 취지로 시작되어 한국 각지의 전설을 조사, 각색하였으며 각종 효과음을 곁들여 극화하였다. 시그널 곡으로는 클로드 드뷔 시의 〈조각배 (En Bateau)〉가 사용됐다.

1966년 5월 2일에 첫 방송된 『전설따라 삼천리』는 MBC 라디오 편성에서 장수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그 당시 통속적인 연속 드라마에 식상을 느낀 애청자들에게 색다른 흥미를 줌과 아울러 우리네 전통의식인 권선징악의 진리를 되새겨 줌으로써 대중의 갈채를 받았었다. 내 개인으로서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보람을 느끼고 지금의 내 처지를 자위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

내가 충청도 소도시에서 정착하게 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고, 서울을 떠나기 5년 전에 이미 제작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방송에서 『백 만』이란 이름이 사라진 지 어느새 15년이 넘는 셈이고 보면 나를 드라마 연출자로 아는 이는 별로 없다. 그런데 가끔 나를 소개하는 사람이 “전설따라 삼천리를 만든 분”이라고 말할 때 상대방은 나를 몹시 반갑게 맞아 준다. 그래서 나는 『전설따라...』에 더욱 애착을 느끼는지 모른다. 나 혼자 이룩한 것은 결코 아닌데도 마치 나만의 공로로 착각하고 필생의 대표작으로 여기게 됨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방송생활 28년을 마무리한 지금,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허탈감에서 오는 발버둥이리라.

1964년도 춘하계 프로그램 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그때 편성부장이었던 박종민씨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전설을 찾아 소개해 보려는데 야담 형식으로 하

면 어떻겠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그때 나는 아무런 계획도 없으면서 선뜻 “나에게 맡겨 줄 것”을 요청했다. 전설을 소개하는 정도의 프로그램이면 교양부문을 맡고 있는 제작1부에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기에 내가 미리 욕심을 부렸던 것이다. 며칠 뒤 새로 마련된 기본 편성표를 놓고 편성회의가 열렸다. 나의 소관인 제작2부가 담당할 프로그램은 아침 7시 홈 드라마를 시작으로 낮에는 연속극의 재방송, 밤 7시, 8시, 9시, 10시에 각각 15분 내지 20분짜리 연속 드라마 그리고 10시 40분에 『전설따라 삼천리』, 그 밖에도 30분짜리 주간 드라마가 2개나 끼어 있었다. 그야말로 라디오 드라마의 홍수. 그만큼 라디오 드라마의 인기가 절정에 오른 시절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설마저도 극화하여 방송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편성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나는 “라디오 드라마의 또 다른 측면을 개척하여 연속극에 식상을 느낀 청취자들에게 별식을 제공하겠노라”고 주장했다.

나는 이 프로그램을 라디오 드라마의 3대 요소를 최대한 활용한 시극 형태로 끌고 나가기로 했다. 전설이란 거의가 황당무계한 애깃거리인만큼 리얼한 수법으로는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뿐더러 자칫하면 품위를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대사는 산문시와 흡사하게 정감있도록 구사하고, 음악 효과와 음향 효과를 최대한 이용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뒤편잡하기로 했다. 그래서

원고는 시인인 정공채 씨에게 청탁했고, 음악 효과는 우리 고유의 가락이 격에 맞기는 하나 단조로운 결합 때문에 부득이 양악을 쓰기로 했다. 당시 제작

비 절감 정책으로 외부 성우의 캐스팅이 제한돼 있었으므로 전속 성우인 최낙천 씨와 김영옥 씨에게 해설을 맡겼고, 전설의 소재 발굴은 김진희 PD에게 맡겼다. 노력의 보람은 단시일에 나타났다. 회를 거듭할수록 좋은 반응을 보이더니 모 제약 회사에서 광고를 붙였다. 스폰서가 없는 프로는 맥이 빠지고 천대를 받기 마련인 터에 다행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제약 회사를 담당한 업무부 직원이 찾아와 스폰서 사장이 「오! 대니 보이」를 무척 좋아하니 까 시그널 뮤직을 「오! 대니 보이」로 바꿔주고 제공 멘트를 “선량한 소화제 파지가 보내드리는 전설따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니, 소화제에다 ‘선량’하다는 표현을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전설을 극화한 프로그램의 시그널을 「오! 대니 보이」로 해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당시 제작물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더라면 어쩔 수 없이 스폰서의 횡포를 받아들였을는지 모르지만 이 프로야말로 어디에 내놓아도 팔릴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기에 그런 요구를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었다. 스폰서도 확보되었으므로 해설자를 외부 성우로 바꾸자고 편성부에 당당하게 제의했다. 결국 단 1명의 외부 출연이 허용되어 류기현 씨를 뽑았는데 그때 류기현 씨는 주로 기독교 방송에서 활약했을 뿐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성우였다. 그러나 그의 구수하고 흠뻑새가 물씬한 듣직한 목소리는 단연 전설의 해설자로 적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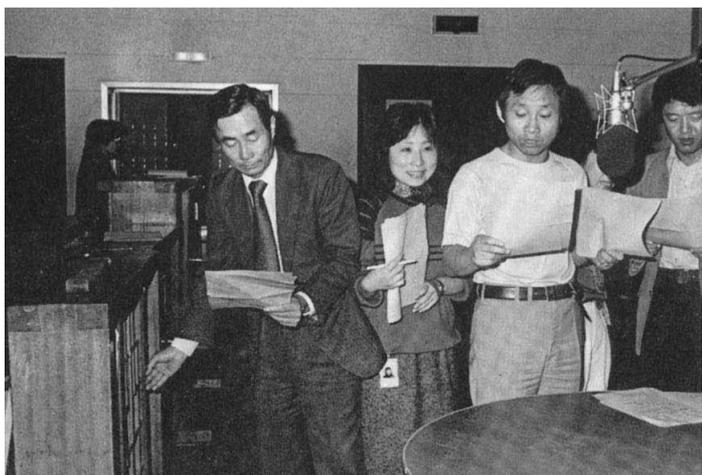
과연 그의 독특하고 정감있는 목소리는 시그널 음악과 음향 효과와 더불어 방방곡곡에 퍼져 『전설따라...』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갔는데 반면 회를 거듭할수록 생각지도 않은 난관도 많았다. 예컨대 석종(돌로 만든 종)의 전설에서 석종 소리를 꼭 내야 하겠는데 이 세상 어디에 가서 석종을 구한단 말인가. 원고를 쓴 사람은 ‘효

과: 석종소리 은은하게 울려 퍼진다’라고만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연출자는 석종 소리가 없다고 해서 쇠종소리로 대체해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청취자들이 돌소리와 쇠소리를 분간 못하는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효과 담당 한웅연 씨에게 석종 소리를 준비하도록 당부하고 출연자들과 연습을 마친 후 스튜디오로 갔다.

그런데 효과 담당자가 준비하고 있던 석종 소리는 인경소리가 아닌가. 나는 버럭 “이게 쇠종 소리지 어디 돌종 소리냐”고 소리쳤다. 한웅연 씨는 “이 세상에 돌종이 어디 있냐”고 항변했다. 참으로 난감했지만 순간 사기그릇을 생각해냈다. 사기그릇은 돌가루를 빚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기그릇을 때려 소리를 낸다면 돌소리기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기 대접을 마이크 가까이 대고 작은 나무망치로 두들겨 “땡, 땡” 하는 소리를 고속으로 녹음한 후 저속으로 재생했더니 “깡, 깡” 하는 소리로 바뀌었고, 그것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음의 속도를 늘렸더니 끝내는 “과양, 과양” 하는 종소리로 변했다. 그 소리는 누가 들어도 분명한 석종 소리였다. 그 밖에도 용마의 울음소리라든가, 호랑이와 구렁이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 장면에서 구렁이의 꿈틀거리는 상징적인 음향을 만들어 호랑이의 으르렁대는 소리와 대항시켰던 일 따위도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다.

이제 『전설따라...』는 세인의 기억에서 사라져 가고 있고 흠뻑새 물씬했던 구수한 목소리의 주인공 류기현 씨도 사라졌다. 나 역시 언젠가는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다. 다만 꺼져가는 라디오 드라마의 회생을 바랄 뿐 그 밖에 무슨 바람이 있겠는가? 환원還源의 진리가 입증해 줄 것이라 믿는 까닭에 마음을 놓는다.

(1982년 6월호 MBC가이드에서 옮겨옴)



잊지 못할 『푸른신호등』 진행 20년



서유석(가수)

「푸른신호등」은 1966년에 5분 짜리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교통 프로그램’이다. 당시에는 차가 많지 않아 ‘자가 운전자’라는 용어도 없었고 ‘교통문화’라는 개념조차 없었다. 그러다가 「가로수를 누비며」(TBC), 「명랑교차로」(DBS) 등의 유사 프로그램이 다른 방송사에서 생기면서 청취율 경쟁이 시작됐다. 타 방송사에서는 코미디언 송해, 허참을 진행자로 내세웠다. 특히 「가로수를 누비며」는 송해 씨의 친근하고 구수한 목소리에 힘입어 「푸른신호등」을 따돌리고 저만큼 앞서 갔다. 그러자 빼앗긴 청취자들을 다시 모셔 오기 위해 「푸른신호등」의 진행자 교체를 논의했다. 나는 당시 FM에서 ‘정오의 희망곡’과 AM에서 ‘MBC 희망음악 서유석입니다」를 맡고 있었는데 최규철 부장이 「푸른신호등」 진행까지 맡으라고 했다. 당시 「가는 세월」이란 노래가 히트하고 있었던 때라 노래 부를 시간을 뺏겨야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교통프로그램 진행도 나름 재미있겠다 싶어 맡기로 했다. 1977년 4월 1일이었다.

「푸른신호등」 진행을 맡기는 했지만 교통문제, 운수문제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있을리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장 체험을 통한 학습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었다. 직접 피부로 느껴보는 것보다 더 좋은 스승이 있겠나 싶어 일단 거리로 나섰다. 첫 번째 한 일은 라디오를 켜놓은 상가와 식당, 납대문시장 라디오 가게 등을 돌며 타 방송사에 맞춰진 라디오 채널을 MBC로 돌리는 작업이었다. 얼굴이 알려진 덕분에 주인들은 모두 내 요청을 웃으면서 들어줬다. 그리고 시내버스회사와 택시회사를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운전기사 노조와 안내양 기숙사를 찾아가 같이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기도 하고 방송사에 들어 온 PR용 레코드를 선물하기도 하면서 MBC 청취를 유도했다. 6개월 동안 매일 하루 평균 100km를 달리는 이런 노력의 결실은 6개월 후 ‘청취율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한 일은 ‘교통가족의 단합’을 위한 이벤트 창출이었다. 봄에는 ‘푸른신호등 축구대회’를, 가을에는 ‘푸른신호등 가족운동회’를 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한국도로공사의 후원을 얻어 도로공사 운동장에서 펼친 운수회사별 축구대항전은 인기 최고였다. 어떤 회사에서는 운전사 채용공고에 ‘축구를 잘 하는 자’라는 조건을 붙이기도 했다. 국가대표선수 출신을 초빙해서 특별훈련을 시키는 회사도 있었다. 종일 운전석에 앉아있는 운전사들의 조기축구회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푸른신호등 축구대회’의 영향이 컸다. 가을에 용인 자연농원에서 열린 ‘푸른신호등 가족운동회’ 또한 교통가족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운전기사와 안내양 가족들은 운동회 날짜를 손꼽아 기다릴 정도였다. 그리고 각계에서 협찬해준 다양한 상품들 또한 대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

세 번째 한 일은 ‘교통행정의 분석과 정책 제시’였다. 그 전제로 「푸른신호등」 제작팀은 이른바 ‘생활교통’의 개념을 확립했다. ‘생활교통’이란 ‘만인이 다 교통인’이라는 생각이었다. 보행자에게는 ‘보행 교통’, 운전자에게는 ‘운전 교통’이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교통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개념이다.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능한 쾌적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가는 게 교통의 지상과제라면 그 중에서도 ‘안전하게’라는 명제가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못해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특히 80년대로 들어서면서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한국의 교통문화는 문젯점이 속출했다. 산업 발전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 도로 사정,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통 교육이나 사회 교육 부재, 일관성 없는 교통정책과 그 입안자들의 문제, 급격

한 민주화와 그로부터 파생된 자유방만, 집단 이기주의, 문화의식이 라곤 털끝만큼도 없는 졸부들의 행진, 옆 동네 가는 데도 차를 끌고 가는 주부들...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원인(遠因)과 근인(近因)들이 모여서 교통문화를 망치고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 기술이나 보유 수준은 세계 10위 정도로, 점수로 치면 7~80점 수준인 반면 운전자들의 의식이나 각종 도로 시설, 안전 시설, 보행자 의식 등은 3~40점 수준이었다. 이러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교통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기 위해서 「푸른신호등」 제작진은 꾸준한 교통캠페인을 펼쳐서 그 차이를 좁히기로 했다. 그중 하나가 ‘손으로 말합시다’ 캠페인이었다. 운전자들끼리 또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손동작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것인데 경찰청에서 이를 즉시 스티커로 만들어 홍보해준 덕분에 이 캠페인은 삼시간에 전국으로 번졌다.

‘86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정부는 불친절한 택시기사들을 어떻게 친절한 기사로 바꿀 것인가에 온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다. “택시기사를 때려 잡으려만 생각했지 대우해주는 걸 생각한 적이 있느냐? 40년 이상 무사고 택시기사에게는 무조건 개인 택시 1대씩을 주고, 30년 이상 무사고 기사에게는 택시 값을 할인해 줘보라”고 했다. 내 제안은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로 올라갔고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택시기사 영년(榮年)표시제’라는 것으로, 쉽게 말해 오래 무사고로 운전한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다른 기사들의 본보기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당시 개인택시는 택시 기사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으므로 효과는 당장 나타났다. 택시기사들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생겼고 그러자니 무사고에 무위반 그리고 친절해졌다. (이런저런 공적을 인정했는지 정부에서는 2000년에 서울 교통문화상, 2002년에 국민훈장 목련장을 내게 수여했다.)

교통프로그램 진행자

는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방안을 실천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상냥하고 씩씩한 음성으로 청취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접고 조금은 거칠고 직선적인 발언을 던짐으로써 듣는 이들의 신경을 자극하는 진행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교통 안내나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어느 정도의 비판과 풍자, 따끔한 충고 등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끝멘트를 마무리했다. 나만의 독특한 말투로 교통관계 공직자나 행정 책임자들에게 묻고, 따지고, 질타했다.

“요즘 대통령 선거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통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교통 정책을 제대로 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은 안 봐도 다 알 수 있다가 이겁니다. 대통령이란 게 뭐 대수로운 자립니까. 국민 편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1987년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에 내가 했던 오프닝 멘트다. 교통프로그램의 오프닝으로서 ‘다소 과격한 발언이었다’는 평도 있었지만 ‘시의적절한 멘트였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1992년 6월에는 일본 수상이 교통 정책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예를 들면서 목소리를 더 높였다.

새벽 6시, 한 명의 MC와 두 명의 프로듀서, 다섯 명의 리포터, 300명의 교통 통신원으로 구성된 「푸른신호등」 팀은 머리를 맞대고 그날의 방송 계획을 점검한다. 대강의 진행 예정표는 있지만 뚜렷한 원고는 없다.

교통 상황이란 게 순간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물 흐르는 듯한 서울과 수도권 교통을 위해 몰입하다 보면 숨 한번 제대로 쉴 새 없이 한 시간이 흐른다. 그 시간이 너무 그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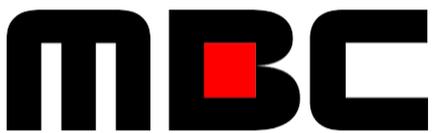
김승월 칼럼

서서히 좋아진 CI, 갈수록 그리운 사람 이철수



김승월 (편제. 이사)

첫눈에 훌쩍 반할 수가 있다.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매력을 느낄 때도 있다. 후끈 달아오른 그 마음이 금세 식어버리기도 한다. 무뎠던하게 봤는데 시간이 갈수록 은근히 좋아지는 것도 있다.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다.



2005년에 새로 만든 MBC CI(사진)를 처음 봤을 땐 그리 맘에 들지 않았다. 뭔가 지적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잡히는 건 없었다. ‘있는 CI 그냥 쓰면 될텐데 왜 돈 들여 새로 만드는지’ 의아해했다. 시간이 흐르자 새 CI가 눈에 익숙해지면서 지난 CI가 초라하게 보였다. 좀 더 지나니 새 CI가 듬직한 이미지로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 특히 MBC의 B 안의 빨간 네모는 여러 가지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매력적인 콘텐츠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 말 저 말에 휘둘러서일까, 2012년에 CI에서 빨간색을 빼서 조금은 아쉬웠다. 그래도 나는 MBC CI가 다른 방송사와 견주어 썩 괜찮은 편이라고 여긴다. 그런 CI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당시 홍보국 이철수 국장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을 안 때는 그가 숨진 지 석달 뒤였다. 어떤 사우와 안부 전화를 주고받다가 전해 들었다. 2017년 12월에 북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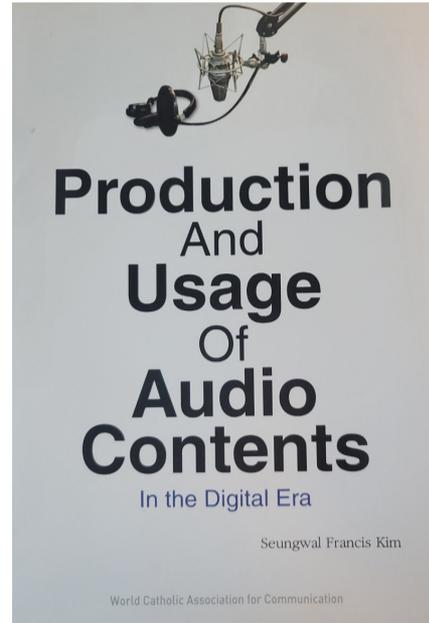
에 올라갔다가 인적 드문 산길에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단다. 생전에 그에게 “화가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느냐”고 물었더니, “장승업”이라고 했다. ‘그의 그림도, 삶도 좋아한다’고 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취화선’에는 장승업이 술병을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혼자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온다. 그도 장승업처럼 술을 참 좋아했다. 자정 무렵 술에 취해 혀 꼬부라진 소리로 전화하던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울린다. “선배. 우리 집 앞이야.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하는 거야.” 그러면서 평소에는 그리도 과묵하던 그가 이 말 저 말 막 늘어놓곤 했었다.

그런 그가 나를 무척 고마워한 적이 있었다. 말수 적은 이 사내는 결혼 소식을 내게 알리지 않았다. 98년 4월, 결혼식 당일해야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듣고 만사 제치고 식당에 달려가 이미 식이 시작된 후에 입장했다. 언젠가 술자리에서 그가 말했다. ‘결혼식 때 와준 사람들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그에게 베푼 그 작은 친절을 나는 꽤나 여러 차례 우려먹었다. 프로그램 홍보에 디자인이 필요할 때마다 그에게 부탁했다. MBC 가톨릭 교우회 활동에 필요한 포스터나 현수막 또는 기념품을 만들 때도 디자인을 부탁했다. 심지어 어느 지인의 회사 CI까지 만들어 달랬다. 그것도 공짜로. 그가 만들어 준 그 회사의 CI를 처음 봤을 때는 눈에 차지 않았다. 고개를 젓는 나에게 그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CI는 첫눈에 탁 들어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서서히 좋아지는 게 좋은 겁니다.” 쓴웃음이 나왔다. 이 바쁜 세상에 홍보하려면 첫눈에 탁 들어와야 하는 게 아닌가?

그의 말이 곱씹힌 건 몇 달이 지나서다. 그가 만들어 준 CI에는 정방형의 상자 디자인이 있었는데 비슷한 형태의 다른 회사 CI를 보게 됐다. 두 CI를 비교해보니 이철수의 작품

이 훨씬 뛰어났다. 그제야 다시 살펴보니 볼수록 고급스러웠다. 그 CI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일 년이 지나서는 정말 잘 만든 CI라고 믿게 되었다. 그런 과정을 지인도 비슷하게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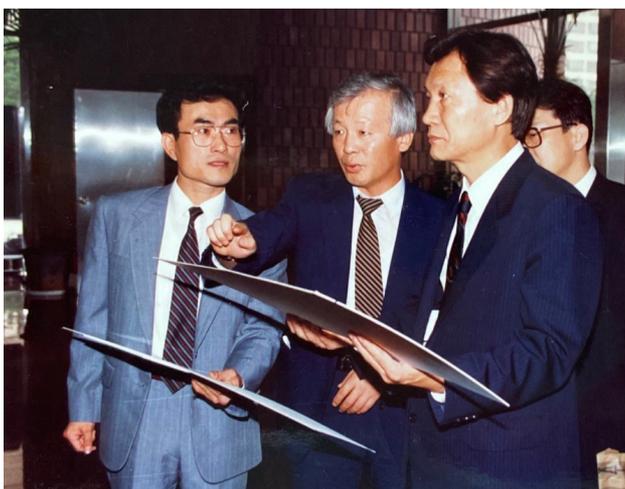
그가 세상을 뜨기 몇 달 전이었다. 내가 시그니스(SIGNIS)라는 세계 가톨릭 언론인 단체에서 봉사할 때, 회원들에게 나누어 줄 라디오에 관한 책을 영어로 썼다. 책 제목이 “Production and Usage of Audio Contents in the Digital Era”인데 그에게 표지화를 부탁했다. 물론 공짜로. 그때 그에게는 편집할 PC가 없었는지 표지 컨셉을 잡아서 출판사 디자이너에게 그리도록 했다. 마이크 사진 아래로 긴 제목의 글자를 적절히 배치했다.

표지화를 교정하러 출판사에 갔을 때 그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았다. “행 간격을 조금 벌려주세요. 딱 1밀리만”, “이 글자는 아주 살짝 왼쪽으로, 안 옮긴 것처럼 아주 조금만 옮겨 주세요” 디자이너는 부탁할 때마다 한숨을 내 쉬었다. 눈에 띄이지 않는 차이를 만들려고 고치고, 고치고, 또 고쳤다. 디자이너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라디오 편집할 때 짧은 숨소리를 집어넣거나 잘라내던 기억이 떠올랐다. 나름 치열하게 만든다고 했지만 그처럼 독하게 매만지진 못했었다.

“치아가 다 나가서 임플란트를 했어요,” 그가 세상을 뜬 해에 그의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속이 많이 상한 듯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MBC 로고를 만들면서 2년 동안 이를 악물고 일하다 보니 앞니가 몽땅 나갔단다. 임플란트하느라 이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보니 흐려진 기억이 떠올랐다. 앞니가 나갔다는 이야기를 그가 MBC를 퇴사한 뒤에야 그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다 그렇게 사는 거야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다. 아내는 그가 어려움을 혼자서 다 짊어지고 가는 성격이라고 했다.

지난해에 그의 딸 유선이에게 그에게서 받았던 선물을 되돌려줬다. 그가 특별한 날에 내게 보낸 난초 화분이다. 제대로 돌보지 못해 몇 달 뒤에 난이 시들었다. 새 난을 사다 심으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룬 채 십여 년 동안 사무실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쓴 화분을 받아든 유선이가 물었다. “아빠가 만든 건가요?” 미처 그 생각은 못해봤다. 그냥 사서 보내 준 거라고 생각했었다. 물어보지 못한 게 그에게는 너무 많다.

세월이 흘러야 드러나는 게 있다. 기억의 모자이크를 맞추다 보면 전체를 새롭게 이해하게도 된다. “거짓은 역사의 강을 건너지 못한다.”, “MBC라디오의 정치 다큐 드라마” 격동 50년을 홍보하려 만들었던 슬로건이다. 참으로 좋은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빛나지 않을까. 서서히 좋아진 MBC CI처럼 세월이 갈수록 이철수, 그가 그리워진다.



지금 여기에 농일 뿐



구영회(보도)

그다지 크지 않은 책상이었지만 엄청 무거웠다. 작은 구들방과 부엌 사이에 있는 옆방은 서재 겸 생활공간이다. 이곳에는 온갖 물건이 빼곡하다. 나는 가끔 이 중간 방 잡동사니 물건을 정리하거나 재배치하는 공연한 짓을 통해 기분 전환도 하고 숨통도 트는 일거리를 만든다.

8월 땡볕에 무거운 책상을 혼자서 옮기는 작업은 시작부터 온몸을 땀범벅으로 적셨다. 혼자라서 킁킁거릴 수밖에 없었지만 오래전에 덩치 큰 장롱을 마당 건너 저만치 떨어진 창고까지 거의 한나절 걸려 천신만고 끝에 옮긴 무리한 쾌거를 맞본 터라 이번에도 껌기와 오기를 부려 바깥 텃마루 앞에 내다 놓을 참이었다.

서랍이 여섯 개 달린 그 책상은 이곳 지리산 생활을 막 시작한 초기에 새로 산 것도 아니다. 집사람 친구의 제보를 받고 서울 우리 집에서 꽤 떨어진 어느 주택가 골목 분리수거장까지 찾아가 내 차에 싣고 내려온, 누가 내다 버린 헌 책상이었다. 그러나 아직 쓸 만했고 묵직하고 단단해서 몇 년 동안 혼자 시골살림 하면서 독서도 하고 글을 쓸 때 요긴하게 사용했던 물건이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가볍고 실용적인 책상을 대형마트에서 싸게 구입해 교체한 이후로는 잡동사니 물건을 넣어 두고 다시 그 위에 다른 물건을 쌓아 놓으면서 중간방 한가운데를 크게 차지하는 바람에, 볼 때마다 웬지 답답한 애물단지처럼 눈길이 거슬렸다. 그래서 마침내 바깥에 내놓기로 마음



먹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친김에 그곳에 있던 온갖 묵은 물건들도 덩달아 정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물건 정리 또한 그리 수월할 리 없었다. 수십 가지 다양한 물건을 다시 하나하나씩 일일이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어쩔 수 없이 챙겨야 할 것과 버려도 좋을 것을 한참 걸려 구별한 다음에는, 먼지를 닦거나 분리수거를 하거나 소각해야 했다. 굳이 시간에 쫓길 일은 아니었으나 날씨는 무덤지, 이마에서 섬 없이 흘러내리는 땀방울에 눈은 따갑지, 온몸은 흠뻑 젖어서, 그야말로 모든 과정이 나의 인내심을 테스트했다. 하지만 일단 스스로 난장판을 벌여 놓았으니 반드시 끝장을 봐야만 했다. 결국 마무리에 하루도 아니고 이들이 걸렸다.

그 와중에 내 눈에 띈 물건들이 있었다. 하나는 존재조차 까마득히 잊고 지낸, 아주 오래된 카세트용 녹음테이프, 다른 하나는 세월이 한참 지나간 것을 일깨우는 몇 장의 사진이었다. 요즘은 오디오 카세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나는 아직도 갖고 있다. CD 플레이어와 라디오 그리고 카세트 기능을 모두 구비한 구식 물건이지만, 나에게는 날마다 클래식 음악과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전해주는 고맙고 기특한 친구나 마찬가지다. 발견한 테이프 겉에는 집사람 글씨로 '그이 뉴스 음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과거 방송국에서 일할 때 아내가 내 음성이나오는 뉴스를 들으면서 녹음해둔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는 짐작이 갔다. 궁금해졌다.

나는 즉시 테이프를 카세트에 집어넣고 들어 보았다. 라디오 뉴스 앵커 시절, 이런저런 소식을 전하면서 이슈가 될만한 소식에 관해 코멘트를 하는 젊은 날의 내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내 기억 회로가 과거로 되돌아가 그때 그 시절을 더듬었다. 슬며시 혼자 웃음 짓다가 마음이 웬지 숙연해졌다. 그때 그 순간에 아내가 나의 음성을 유심히 들으면서 먼 훗날 추억으로 남기려고 부지런히 녹음하는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졌기 때문이었다. 웬지 애뜻하고 몽클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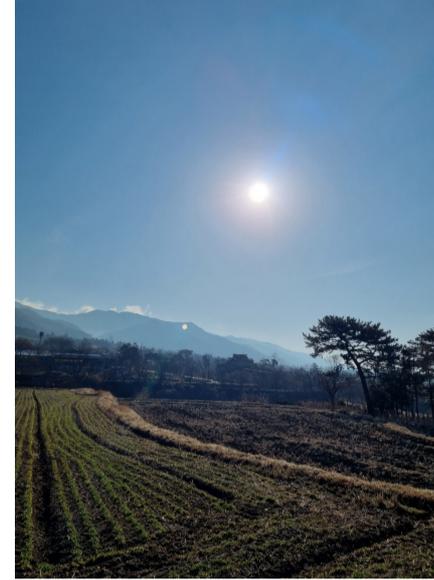
어떤 전류 같은 것이 가슴을 찌릿하게 관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잠시 나는 담배 한 개피를 꺼내 피우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 뿜는 연기에 지나간 세월이 묻어나와 함께 사라지고 있었다. 그 시절이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다.

이번에는 사진을 집어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는 현수막이 보였다. 그 현수막 앞에서 내가 마이크를 들고 서서 뭔가 한마디를 하는 순간이었다. 그 앞 테이블에는 참석자들이 앉아서 듣고 있었다. 참석자들의 얼굴은 낮익었다. 과거 안방극장 시청자를 사로잡았던 농촌 드라마<전원일기>의 감독을 오랫동안 맡은 권이상 프로듀서, <전원일기>의 주인공이었던 탤런트 최불암 선생, 히트 드라마<대장금>을 연출했던 이병훈 감독 등 쟁쟁했던 얼굴들이 보였다. 사진 속 현수막에 적힌 날짜를 보니 벌써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 속에는 MBC의 과거 경영진이 원탁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맨 앞쪽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안경을 쓴 얼굴이 바로 나왔다. 지금은 가끔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마주치는 엄기영 앵커도 보였다. 그중 한 사람은 몇 해 전 이미 세상을 떠난 얼굴이었다. 나는 이 사진을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은 참 묘하다. 인생길의 어느 한순간을 있는 그대로 동결시켜서, 세월이 지날수록 그 순간이 어느새 까마득한 옛날이었다는 사실을 소스라치게 가차없이 드러내면서 그 당시의 수많은 기억을 닦치는 대로 불러낸다. 사진은 인생길에서 겪은 슬한 일이 모조리 '뜬구름처럼 지나간 것일 뿐'이라는 엄연한 이치를 때로는 따뜻한 색채로, 때로는 차가운 톤으로 일깨워 준다. 그래서 인생이란 언제나 시시각각 어김없이 과거로 내던져지는 순간의 연속이라는 것을 냉정하게 되새기게 한다. 지금의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뉴스를 말하지 않는다. 지리산과 섬진강을 이야기할 때가 대부분이다.

지금 내가 놓인 처지는 세상에 내밀 만한 명함이 없다. 인생이 흘



러가는 강물 위에서는 누구나 모든 명함을 강물에 떠내려 보내야 한다. 인생은 섬 없이 흐르는 강물이다. 당신과 나는 그 강물에서 그냥 하나의 군더더기 없는 '존재'일 뿐이다. 지리산 악양 땅 평사리에서 벌어진 역사와 사람들 이야기를 기나긴 대하소설 <토지>로 써 내려갔던 작가 박경리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흥가분하다.”

나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저 강물에 던져 버려야 한다. 훗날 마감할 때 가지고 갈 것이라곤 가볍디 가벼울 나의 영혼 뿐이다. 달리가 겨갈 것은 결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제는 나도 알고 있다. 나는 언제나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농일 뿐이다.

인간 모두에게 하늘은 오로지 '지금과 여기'만을 살도록 허락했다. '지금과 여기'를 벗어나면 모두 신기루일 뿐이다. 나는 지금 지리산 산자락 외딴 마을 허름한 거처에서 이 순간 글을 쓰고 있다. 67년 긴 세월을 관통해 지금 여기에 이렇게 혼자 있는 이 '존재'는 누구일까.



특별 기고

梧東山房에서



이현규(보도)

▶과유불급過猶不及

금년 상반기에는 ‘골프안식년’을 갖고자 한다. 심신心身이 고장 나서다. 라운딩을 나가보니 거리는 확 줄고 공은 안 맞고 구멍은 잘 빠진다. 이유는 과유불급. 넘치는 건 모자람만 못하니라. 그간 골프를 넘 사랑하다 못해 폭 빠져버려 인생 제 길을 잃고 헤어나자 못해서라 여긴다.

지난 40년 가까이 국내는 물론, 직업 덕에 해외에도 10년을 넘게 살면서 틈만 나면 한 곳이라도 그런 손맛을 더 보고자 여기저기 쏘다녔다. 스코어는 늘 싱글대 유지를 목표로 정했고, 그러다가 마치 프로 선수처럼 한 점 부끄럼 없는 완벽 플레이로 언더파 기록도 냈으며 홀인원도 두 번씩이나 했다. 멤버십 욕심도 너무 과해져 수도권과 인근에 두 개씩이나 쥘 손을 명년에 8순을 앞둔 백수 주제에도 계속 못 놓고 있다.

아울러 골프장 뒷산 중턱엔 귀촌 歸村용으로 별가別家도 마련해 교수 생활할 때 썼던 자작호 ‘오동梧東’을 넣어 ‘오동산방’梧東山房이라 당호堂號도 걸었다. 원래는 서울에서 지방



대학까지 통근길이 너무 멀다고 우겨 아내의 허락을 받아 얻은 수확물인데 집 바로 옆에 베틀성당이 있는 성지聖地다. 이곳은 천주교 제1호 김대건 신부에 이어 마카오에서 받은 우리나라 제2호 최양업 신부의 유업을 기리는 곳이다. 마침 우리 가족은 처가와 아들과 딸네 사돈집에다 나 또한 돌아가신 모친과 함께 가문 전래의 불교 집안에서 천주교로 개종한지 어언 십수년이 넘었다. 성지 바로 옆 땅이라 아내의 마음을 거들어준 건 주님의 뜻일진대 그래서 나는 이제 자주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상처뿐인 榮光

내 판엔 성지 근처 그림 같은 집에 살며 초원에서 공 치고, 주님 찾고, 애첩 같은 댕댕이와 놀고, 먹고 마시고 맨날이 행복 만땅이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과 더불어 마음의 고장이 한꺼번에 겹치니까 용쓰는 재주가 없더라. 골프의 신체적 요소는 팔, 다리, 허리와 눈이라 생각하는데 다리만 빼고는 죄다 고장이 났다. 탈이 난 순서로 폼자면 먼저 눈으로, 4년전 백내장 수술 후유증으로 얻은 건조증이 자주 시력 난조로 번져 창공으로 날린 나이샷 백구가 어디로 뺨어 간 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두 번째는 팔뚝으로, 재작년에 시골집 나무를 전지하다가 떨어지면서 큰뼈 한 개에 금이 가서 철심까지 박아둔 상태다. 세 번째는 허리다. 작년 말 공을 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은 후로 골병이 들었는지 몇 달째 침뜸 치료를 지속 중이다.



끝으로 마음의 병은, 올 댕댕이가 저 세상으로 가며 내게 안겨 준 것이다. 상사 병의 작은 주인공은 미국산 믹스견이다. 딸아이가 유학을 마치고 함께 귀국했다가 시집을 가면서 두고 간 녀석인데 산골집에서 나와 돌이 아기자기하게 동거동락한 세월이 너무 길어선지 아니면 내가 녀석에게 너무 빠져선지 아무튼 무려 18년이나 살다가 지난해 추석 다음 날 무지개 다리를 건너 갔는데도 이별이 그토록 아쉬워 선가 가슴이 자주 저리다 못해 아프다. 산골에서 마치 껌딱지 애첩인양 긴긴 세월 옆자리 지켜주어 나에겐 화려한 골프 이력도 더하게 도와준 댕댕이 <페퍼>야, 사랑해~.

▶깡대신 닭 Bucket List

오동산방 거실 창쪽 벽면은 완전 구닥다리 장식이다. 졸업장, 상장, 상패, 임명장, 공로패, 각종 기념사진 등등을 주욱 걸어 놔다. 목조주택이라 벽면에 못질을 할 수 있고 아내도 눈감아 주어 가능했다. 요



즘 도심의 아파트 등 주택들의 벽은 모두가 시멘트벽이라 못 박기도 수월치 않고, 안주인들이 빈 공간을 애호하는 풍조라서 결혼식이나 가족사진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진, 상장, 상패들은 서재나 창고 구석에 박혀 빛을 못 보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 점에서 나는 운이 트인 셈이다. 그런데 맨 끝에 두 곳은 아직 빈 공간이다. 성공했을 때 현장 사진과 기념패가 들어갈 자리다. 표지 제목은 "그곳에 가고 싶다"와 "그것이 하고 싶다"로 정했다. 둘 다 내 인생 마지막 버킷리스트 목록이다. 내년에 맞는 나의 8순 전 달성을 목표로 세운지 어언 3년이 흘렀다.

‘그것이 하고 싶다’는 건 골프다. 아마추어 골퍼의 평생 목표는 ‘홀인원’, ‘언더파’, ‘에이지샷’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난 ‘에이지샷’만 남았다. 18홀의 스코어가 본인 나이나 그 아래를 기록하는 거다. 이 기록도 언더파처럼 이른바 3NO(O.K, 텃치, 멀리간)의 완벽한 신사적 플레이가 원칙이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 쳐야하는 타수도 늘어나 쉬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내 라운딩은 그간 용산고 동창 골프모임인 비룡회 벗들과 월 1회, 클럽 동호인들과 월 2회 정도여서 기회는 충분했다. 하지만 실력이 날이 갈수록 뒤쳐지는 데다 골프 여건의 많은 변화까지 생겨서 쉽지 않았다. 라운딩의 주 무대가 골프장 멤버십 동호회라서 매번 동반자가 바뀌다 보니 낮이 설어 홀로 신사적 플레이하는 게 눈치가 보였다.

또한 골프장마다 티박스 등 시니어 플레이 조건이 다르며 더구나 올해부터는 만 나이로만 치는 것도 약재가 될 듯하다. 그래서 올해 초 골프에 이지샷 도전은 일단 내려놔다. 대신 만



60세때 기록한 1언더파 71타의 기록으로 양쪽을 만족코자 한다. 비록 기록은 다르지만 성격이 엇비슷하니 감수하련다. 깡 대신 닭일지 아님 그 반대인지 모르겠다만.

‘그곳에 가고 싶다’는 건 페루의 잉카 유적지 ‘마추피추’다. 흔히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히말라야’, ‘안데스’, ‘록키산중’과 ‘킬리만자로’, ‘아이스랜드’를 꼽던데 난 운 좋게 남미 쪽을 빼고는 다 가봤다. 각 두 번씩의 특파원과 유학 연수에 수 차례의 해외취재 덕이다. 마침 4월 20일께로 인터넷에 여행상품 광고가 뜨길래 일단 부부 동반으로 신청해 놔다. 다만 그곳 국내 정치 불안이 계속 중이고 마침 관광 비수기라 어쩌면 어려울지도 모른다. 대신 깡 대신 닭의 심정으로 대안도 마련했다.

이번 여행이 불발되면 대신 댕댕이를 새로 입양해서 이름을 ‘마추’라 짓기로 했다. 속담대로라면 순서가 바뀐 거다. 강아지 입양은 나중 순서의 닭이지만 올 부부는 흑여 남미를 못가더라도 앞 순서의 깡으로 여기고 남은 생애 그 이름 부르며 위안을 삼으려 한다. 추후 만에 하나 추가 입양이나 아님 고양이라도 동참하게 되면 그 이름은 ‘피추’다. 반년전 무지개 다리를 건너 간 댕댕이 ‘페퍼’. 흑백색의 바둑이라 ‘후추’라 이름 지은 건데 동생 ‘마추’도 그런 바둑이 모양새면 더 좋으련만.

